

빅토리아시대 嬰乳兒服과 代行的 消費

김 소 영* · 김 진 구

덕성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복식은 그 시대의 분위기와 취향을 흡수하여 이를 반영하며 착용자의 지위와 욕구를 보여 준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서구 사회는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의 결과로 기존의 귀족과 평민이라는 계급의 장벽이 무너지고 공업화와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고도의 산업사회로의 성장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도의 경제성장은 물질만능주의의 사회풍조를 가져왔으며 이는 기존의 신분위주의 사회계급을 경제력 위주의 사회계급으로 재편성되게 하였다. 더욱이 세속적인 가치관의 팽배는 경쟁적으로富를 축적하는 것과 더불어 생활전반에 걸쳐 과시적 소비현상을 가져오게 하였다.

과시적 소비현상에 관하여 Thorstein Veblen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나富를 과시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보다는 남에게 스스로를 돋보이게 하고 허세를 부리기 위하여 적지 않은 낭비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시적 소비는 빅토리아 시대의 복식소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빅토리아 시대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던 중산계급은 자신이 획득한富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복식을 이용하였으며 착용자의 금전적인 기준에 따라 선택된 복식은 착용자가 속한 사회계층을 표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시적 소비는 유한계급의 妻나 하인에 의하여 대행적으로도 행하여졌는데 Veblen이 대행적 소비의 대상으로 유한계급의 妻와 하인에 관하여 주로 설명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Bell은 대행적 소비에 유한계급의 자녀를 포함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복식은 착용자가 직접 선택하여 착용하며 착용자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복식이 이용되기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복식은 착용하는 당사자인 어린이 자신이 아닌 부모가 복식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아동복에는 아동 자신들의 욕구보다는 부모의 욕구가 더 많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복은 아동 자신보다는 복식을 선택하는 부모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부모의 과시 욕구를 표현하는 대행적 소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빅토리아 시대 嬰乳兒服에서 대행적 소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찾아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빅토리아 시대의 사진, 상점 카탈로그, 광고 잡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헌들을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빅토리아 시대 嬰乳兒服을 의복, 머리모양 및 머리장식, 양말 및 신발로 나누어 대행적 소비를 분석하였다. 연구범위는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미국과 프랑스까지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嬰乳兒服이란 용어는 嬰乳兒의 의복과 머리모양 그리고 기타 부속 품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嬰乳兒服의 시기는 0세에서 2세까지를 말한다. 빅토리아 시대 嬰乳兒服을 Veblen과 Bell의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빅토리아 시대 嬰乳兒服의 대행적 소비는 의복의 크기, 길이, 조합, 제작솜씨, 가격 그리고 소재에 있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嬰乳兒服에서 부모의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징하는 대행적 소비는 길이가 길고 풍성한 의복, 다양한 의복의 종류, 의복의 복잡한 조합, 최고급의 제작솜씨, 높은 가격, 값비싸고 귀한 소재의 사용 등에서 나타났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부유한 가정의 영유아 로브의 길이는 더 길고 더 넓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유아복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했으며 필요 이상으로 겹겹이 옷을 많이 껴입힘으로써 부모가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음을 과시하였다. 영유아의 세레복 등은 최고급의 수공 제작솜씨로 만들어졌고, 대부분의 영유아복은 값비싸고 고급스러운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가격은 빅토리아 시대 당시의 다른 물가에 비하여 굉장히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높은 가격과 값비싸고 고급스러운 소재의 사용은 부모의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과시적으로 상징하는 대행적 소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빅토리아 시대의 아기들은 실외에서는 항상 모자를 착용했으며 놀이를 할 때조차도 모자를 착용하였다. 아기는 항상 모자를 착용해야하는 만큼 낮에 쓰는 모자(day-cap)는 중요한 의복품목이었으며 다양한 재질과 다양한 장식으로 만들어졌다. 영유아의 모자는 고급 소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졌으며 장식적이었고, 이러한 고급스럽고 값비싼 모자의 소재와 트리밍 장식의 과도한 분량 등은 그 아기가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신분을 과시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걸지 못하는 아기에게 실크 등의 값비싼 소재로 만든 장식적이고 값비싼 신발을 신겨 부모가 이를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였다.